

오픈소스서비스개발방법론
(RevolutionOS 감상문)

교수님 : 윤석찬 교수님

전 공 : 컴퓨터공학 (3학년)

학 번 : 0200572006

이 름 : 강익선

감 상 문

나를 포함하여,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컴퓨터 운영체제로 윈도우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사람들이 아무런 의식 없이 사용하는 운영체제지만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학생인 입장인 나의 관점에서 바라본 운영체제는 어떨까?? 오늘 수업시간에 RevolutionOS 다큐멘터리 동영상을 본 뒤에 생각이 들었다.

동영상의 주된 내용은 OpenSource 인 리눅스에 대한 소개와 GNU 의 라이선스 GPL, 그리고 각 오픈소스의 진영의 권위자들이 오픈소스 및 프로그램 개발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내용이었다. 리눅스의 개발과정 그리고 숨겨진 이야기 오픈소스인 리눅스를 이용하여 어떻게 상용화가 이루어졌고 리눅스의 향후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었다.

이제까지 아무런 생각없이 써왔던 운영체제인 윈도우는 유료인 운영체제로, 많은 회사들의 상업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운영체제이다. 운영체제에서 지원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생기게 되면 그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라도 윈도우라는 운영체제를 사용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윈도우라는 운영체제를 사용할 수록 많은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게 된다. 또한 업무용 프로그램 들이 나오게 되고,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툴(컴파일러 등)까지 판매하게 되는 것이다. 윈도우 운영체제와 같이 일반 PC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운영체제로는 리눅스가 있는데, 리눅스는 윈도우와 다르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어떻게 오픈소스인 리눅스를 이용하여 상용화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동영상에 설명이 나왔는데, 그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 리눅스는 무료이지만 이러한 리눅스를 바탕으로 다양한 서버 구축과 기술지원을 통해 이익을 남길 수 있고, 다양한 배포판을 제작 배포하며 광고 등을 통해서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시간을 통해 생각이들었다. 그리고 또한 개발자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들과 협력을 통해서 수시로 업데이트 되고 패치되는 과정에서 상용 프로그램 및 운영체제와 다르게 변화에 빠르게 적용되고 소스 또한 오픈되기 때문에 보안상 취약점이 나오게 되면 빠르게 수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이 빠르게 진화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스마트폰의 운영체제도 애플의 iOS와 구글의 안드로이드로 크게 두가지 경우로 나뉘게 되는데 리눅스와 윈도우 같이 서로 비슷한 상황으로 대치되는 느낌을 받았고, 이번 시간을 통해 오픈 소스 및 개발 방법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